

책으로 세상을 읽다

거대한 자본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돈과 나」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돈과 나」 마루야마 슌이치 지음

요즘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주식 열풍이 한창이다. 코로나19 창궐,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미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을 택한 것이다.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특성상 이 흐름에 같이 올라타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불안감도 돌고 있다. 비단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이익을 추구한다. 매해 억 단위의 돈을 벌어들이는 갑부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그

러나 그런 당연한 이치를 만들어 낸 거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나의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일본 NHK 방송의 프로듀서인 마루야마 슌이치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지난 30년간, 자본주의가 고도화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근대경제학에서 마르크스경제학까지 폭넓게 공부하며 게이오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NHK에 입사해 다큐멘터리 <욕망의 자본주의>를 제작하는 등 현대 자본주의의 실체를 파고드는 데 관심을 두어왔다. 그리고 지난해 <돈과 나>라는



현대 자본주의 상징인 주식과 화폐 / 출처 : Pexels

책을 출간하며 다시 한번 자본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욕망의 자본주의>가 기성세대를 향한 것이라면, <돈과 나>는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를 위한 삶의 지침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이 사는 사회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줄거리 -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너무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 없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이를 지적하며 책의 서두를 자본주의의 기본 성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거래와 이를 통한 이윤의 추구,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는 ‘시장’의 존재”가 저자가 설명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는 ‘가치’, 즉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줄다리기를 통해 결정된다. 여기서 저자는 자본주의의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강조한다. 바로 ‘자가 증식’이다. 자본이나 가치가 스스로 몸집을 불려간다는 것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시장이다

인데, 달리 말하면 한 사람의 의지로 점점 제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는 자가 증식을 위해 모든 것을 상품으로, 가능한 많은 것을 시장에 유통하려 한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과거에는 ‘물건’을 팔았다면, 이제는 ‘정신’, ‘마음’이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나라가 물질적 산업화를 달성하면서 ‘물건 소비’가 아닌 ‘경험 소비’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 영역을 상품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자는 한 가지 문제

의식을 던진다.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감동이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격)로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경험이나 감정은 기본적으로 사용가치(주관적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 시장 가격이 매겨지면,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저자는 앞으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 강조한다.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달 또한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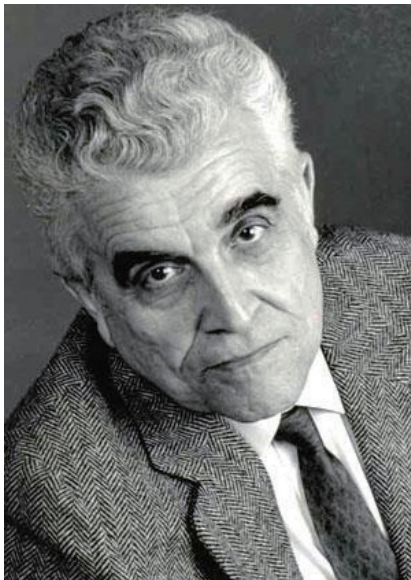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과 불규칙적이고 창의적인 일 / 출처 : Pixabay, Pexels

새로운 기술이 주는 혜택이 소수 부유층에만 편중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테크놀로지가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저자는 노동의 방식을 ‘루틴 워크’와 ‘비루틴 워크’로 나누고, 앞으로 인간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노동인 ‘비루틴 워크’를 강요받을 것이라 예견한다. 하지만 창조성을 발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다니엘 코엔의 말을 빌려 “모든 사람이 예술가로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다. 누구나 예술가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회는 위험하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기술은 사회의 형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근거로 “한 시대의 강력한 기술이 사회 제도의 형태를 규정하고, 인간의 정신과 사고방식 같은 무의식의 층위까지 규제한다”라고 말한다. 예컨대 통신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속도 감각과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무엇일까. 저자는 ‘욕망’이라고 답한다. 그런데 이 욕망이 과연 나의 진정한 욕망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저자는 프랑스 사상이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주체적이지 않고 타인을 모방하며, 타인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모방된 욕망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해 모든 구성원이 욕망의 삼각형으로 빨려 들어간다. 왜곡된 욕망은 종종 그릇된 ‘충동’으로 이어져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저자는 근대 경제학이 인간의 욕구가 항



‘욕망의 삼각형’을 제시한 프랑스 사상가 ‘르네 지라르’.
그는 ‘희생양 이론’으로도 유명하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주체적이지 않고 타인을 모방하며,

타인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모방된 욕망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다.



상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오늘날 욕망의 배후에 있는 다양한 ‘소용돌이’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자본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본연의 정체성, 개성,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인간을 오로지 ‘시장 가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자기 정체성을 잃고 시장이 유혹하는 욕망에 따라 살게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책을 끝맺는다.

자본주의를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

저자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20세기 공산주의와 경쟁하던 시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그 당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제도로써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붕괴 이후 세계화, IT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시장 독점과 양극화 등 여러 현상이 겹쳐 나타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새로운 상품을 찾아 팽창해 나가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아래 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을 정립해보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자본주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다. 말하자면 이 책은 일종의 나침반과도 같다.



3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 / 출처 : 더팩트



일상화된 재택근무 / 출처 : Pexels

책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은 크게 '세계화', '경험(공감)의 상품화', '테크놀로지'다. 저자는 많고 많은 요인 중에 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꼽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필자는 이 세 요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떠올려 본다. 바로 책에서도 언급된 '자가 증식'이다. 더 큰 시장을 찾기 위해 세계로 뻗어 나갔고,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 경험을 상품화했으며, 더 큰 효율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한 번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하면 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들이 동원되며 자본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욕망이 자본주의 고도화에 의해 다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험 상품이 우리의 주관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경우다.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정말로 우리의 욕망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처럼 저자는 인간의 욕망으로 탄생한 자본

주의가 다시 우리의 욕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현시점의 자본주의가 점차 인간이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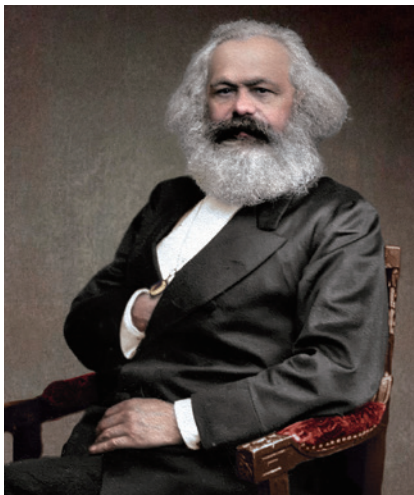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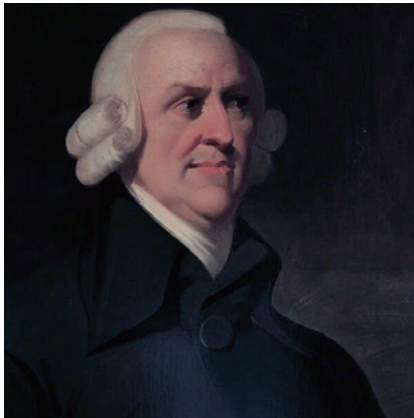
책을 통해 저자가 던지는 주제들은 지금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초반의 '경험 소비'에 대한 부분부터 그렇다. 과거 산업 사회 때는 TV, 자동차 등 물건을 소유하는 게 소비의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만족감이나 기쁨을 주는 매개체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지 않은가.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차원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의 유행을 들 수 있겠다.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타인과 가상 세계에서 대화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후반부 기술 결정론에서는 "기술의 변화는 일과 노동의 정의를 흔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내용이 나온다. 필자는 이 부분을 읽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재택근무가 떠올랐다. IT 기술의 발달이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노동방식을 만들었고, 그 결과 일과 휴식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훗날 이것이 노동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출퇴근', '일터'라는 개념도 옛것이 되지 않을까. 누구나 쉽게 현실을 적용해 저자의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사회의 전체적인 체계, 혹은 거시적인 제도에 의해 개별 인간의 행위와 인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강력한 기술이 사회 구성원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우리의 욕망은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비추어 형성된다" 등의 대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굳이 이론을 들자면 '구조주의'에 가까운 세계관이다. 이런 관점에 비판적인, 이른바 실존주의 성향의 독자들은 '개별 인간을 너무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역으로 생각하자면 기술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주체적인 인간의 의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제로 설명되고는 한다. 그러나 저자가 인간을 마냥 무기력



왼쪽부터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창조적 파괴' 쉘퍼터, '공산주의 혁명가' 칼 마르크스.

는 자본주의와 개별 인간이 상호 견제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바라는 지도 모른다.

애덤 스미스, 조지프 스티글리츠, 조지프 쉘퍼터, 칼 마르크스 등 유명 경제, 철학자들이 책 곳곳에서 등장한다. 저자는 이들의 의견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논의의 깊이와 설득력을 더한다. 저자의 설명에 이들의 의견을 덧붙여 이해를 돕기도 하고, 반대로 이들 지성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듯싶으면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저자가 덧붙이는 식이다. 이 때문에 저자와 석학들, 그리고 독자인 내가 책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게 한다.

자본주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자본주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 이 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이지만, 저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장마다 각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과 문제의식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근대적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하는 식이다. 일부 독자들은 문제만 있고 명쾌한 답은 없어 조금 답답해할 수도 있다. 이에 저자는 "정답이 없는 시대, 함께 고민하고 실마리를 찾아 나가자"라고 답한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해야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의의와 가치가 있는 주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거대한 흐름에서 나 본인의 모습을 지키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자를 알려주는 책은 찾기 쉽지 않다.

책 <돈과 나>는 비약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자신의 속도'로 사는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경쟁에서 이기고,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이 책을 통해 내가 '나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

한 존재로 그려낸 것만은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주체성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어찌면 저자

요즘 서점의 경제 코너에 가면 자본주의나 돈의 속성을 다루는 책이 매우 많다. 대부분 투자에 성공하거나, 돈을 잘 관리